

3M, 산업부문 신학철 부사장 승진

한국인 최고위급 임원 탄생 ... 산업용 연마재 · 테이프 · 화학제품 총괄

미국 3M 본사에 한국인 최고위급 임원이 탄생했다.

한국3M은 자사 출신인 신학철 3M 본사 산업용 접착테이프 부문 부사장이 6월1일부로 산업용 비즈니스 총괄 수석부사장(EVP: Executive Vice President)으로 승진했다고 발표했다.

EVP는 3M 제임스 맥너니 회장 바로 아래 직급에 해당하는 것으로, 신학철 수석부사장은 3M에서 총 7개 부문으로 나누어진 비즈니스 중 하나인 산업용 비즈니스를 총괄하게 된다.

산업용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연마재, 테이프, 화학제품 등 주로 산업용 시장에서 사용되는 공업제품을 생산하고 있다.

신학철 수석부사장은 1984년 한국3M에 입사한 뒤 기술지원 담당, 산업제품 팀장, 소비자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1995년 3M 필리핀 사장을 지냈으며, 1998년 3M 본사 사무용품제품부 이사로 발탁돼 연마재 사업부 이사, 전자소재 사업부 부사장, 산업용 접착제 및 테이프 사업부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.

3M은 세계 62개국에 6만7000여명의 임직원들을 두고 있는 소비재 중심 화학기업이다.

<화학저널 2005/06/02>